

“부르면 온다”...나주, 9월부터 ‘빛가람동 콜버스’ 시행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범 도입...앱·콜센터 호출 내년 2월까지...대기시간·운행거리 단축 등 효과

나주시가 정해진 노선, 운행 시간 없이 승객이 부르면 오고 가는 신개념 대중교통 수단인 ‘나주콜 버스’를 9월부터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시범 운행한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직후 대중교통 대전환을 기치로 승객 편의 중심의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 중이며 대중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인 빛가람동에 첫 성과물을 내놨다.

시는 빛가람동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조감도) 운영 플랫폼 사업자 공모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벤처·

스타트업인 ‘스튜디오 갈릴레이’를 최종 선정했다.

‘나주콜 버스’라는 명칭으로 추진 예정인 나주시 DRT시범사업은 이용 수요에 따라 최적화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다.

DRT차량은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 표에 따른 운행이 아닌 승객의 실시간 호출 수요에 따라 노선, 시간 등이 탄력적으로 설계돼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인구 4만명에 육박하는 혁신도시 내 대중교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로 내부 통행량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도시 내부 공공형 순환버스 노선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의 노선 공급 요구가 지속돼왔기 때문이다.

나주콜 버스는 빛가람동 일대(약 7㎢ 구간)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버스 호출은 모바일 앱(App)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은 고령 주민 등을 고려해 콜센터를 통한 버스 호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스튜디오 갈릴레이에서 자체 개발한 DRT플랫폼을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나주콜 버스 운행 시 승객 평균 대기시간은 기존 32분에서 7.3분으로 77.3%가량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운행 거리, 운행 비용 또한 기존 대비 각각 50.3%, 8.5%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접근성, 편리

성은 물론 운수사와 지자체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 측의 설명이다.

운병대 시장은 “혁신도시 나주콜 버스는 일반 승객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이며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하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될 것”이라며 “민선 8기 대중교통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승객 이동 편의를 최우선 한 지역 전체 노선 개편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대중교통 전체 노선 개편안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마을택시를 연결하는 노선 체계 구축’, ‘혁신도시-나주-영산포 급행버스 도입’, ‘간선(광주) 노선 정비’ ‘혁신도시 순환버스 노선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오는 6-7월 전체 노선 개편안에 대한 20개 읍면동 순회 설명회와 6월 중 나주 교통 보조금 관련 대시민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나주=정종환 기자



해남군 삼산면 목신마을 소재 옥천농협이 옛 양곡창고는 해남군 청년창업지원사업의 리모델링을 통해 실내 야구연습장으로 재탄생했다. <해남군 제공>

“양곡창고가 실내야구연습장으로”

해남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유희공간 리모델링

면 단위 비어있던 양곡창고가 실내 야구연습장으로 변신했다. 한쪽에는 원예체험장과 카페도 조성됐다. 삼산면 목신마을 소재 옥천농협 삼산지소의 양곡창고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창업공간으로 재탄생했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면단위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실시, 삼산면에 위치한 양곡창고 2동을 실내 야구연습장과 원예체험장 등으로 조성했다.

청년 창업공간 지원 사업은 유희공간인 농협의 옛 양곡창고 2개동을 리모델링해 실내야구연습장과 원예체험장, 카페 등으로 조성했다.

양곡창고 2개소 중 330㎡는 실내 야구 연습장으로, 피칭머신이 구축돼 있어 개인 타격, 송구 훈련이 가능하며 사회인 야구단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 날씨와 장소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관 시스템도 도입해 정기적인 연습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65㎡의 공간은 힐링 원예 체험장 및

카페로 조성돼 치유와 힐링이 되는 다양한 원예 체험 및 ESG 실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카페를 조성해 음료를 직접 개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공간의 운영은 6월부터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년 창업공간 지원 사업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초기 창업 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치된 농촌의 유희공간을 활용해 농촌 주변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진도군,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작...전문의 배치

전남병원서...내달부터 입원 전문 병동도 운영

진도군이 관내에서 진료받을 수 없었던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했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전문의가 0-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하며, 토요일은 격주 진료로 진도전남병원 1층에서 운영한다.

군은 오는 7월부터 10여명이 입원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전문 입원실과 전

문 간호사와 장비를 갖춘 소아청소년 병동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김희수 군수는 “소아청소년과 개설로 지역의 아동·청소년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진도군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세권 기자

신안 풍란·석곡 자생지 복원사업 실시

郡, 1004점 분재정원 메타세쿼이아에 2만주 부착

신안군은 “최근 (사)대한민국자생란협회와 함께 풍란·석곡 자생지 복원사업 행사를 아해읍 소재 1004점 분재정원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사)대한민국자생란협회 회원 200여명이 분재정원 내 메타세쿼이아에 풍란·석곡 2만주를 부착했으며, 한국출판 500여주를 서식처에 식재하는 ‘한국출판 자생지 복원’도 함께 실시했다. (사진)

신안군과 (사)대한민국자생란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간 공동으로 우리나라 자생란 복원사업을 신안군 일원에서 지속 추진해 왔다.

박우량 군수는 “지금까지 신안군은 각 섬의 특성에 맞춰 세계 최대규모의 섬정원을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도 전국의 난 애호가와 함께 섬정원에서 풍란·석곡 자생지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 기자



고용부 목포지청-전남도, 고용·복지 연계 강화 ‘맞손’

복지 수급자 안정적인 일자리 통한 탈수급·자립 등 지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최근 전남도와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협약은 두 기관이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통해 탈수급·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자활근로 사업, 자산 형성 지원, 긴급복지사업 참여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연계하며,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개인별 취업 지원계획 수립부터 직업 훈련, 일경험·취업 알선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도내 연간 2만6천여명의 복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경우 복지 전산망(지자체)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산망(고용노동부) 간 실시간 연계가

이뤄질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연계된 대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 지자체 복지 담당,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으로 이뤄진 사례관리 협의체를 통해 참여자의 간병·금융·심리·건강 등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해 건강한 일터로의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남도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연계해 참여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한인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고용·복지정책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복지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전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강진군-남미륵사,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내년 4-5월 봄꽃 축제 개최...관광객 유입 마중물

강진군과 세계불교 미륵대종 남미륵사가 봄꽃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군과 남미륵사의 협약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내년 4-5월 남미륵사 일원에서 서부해당화, 철쭉 등 봄꽃을 주제로 한 축제 개최 관련 내용을 담았다.

군은 ▲축제 종합 및 홍보 수립 ▲진입도로 확·포장 조기 추진 ▲주차장 추가 확보 ▲주차 안내 및 주차료 징수 ▲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관리 ▲지역특산물 및 먹거리 등 판매시설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미륵사는 ▲축제기간 사찰시설 개방 ▲탐방로 개방 등 강진군의 관광정책

에 적극 협조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데 뜻을 모았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반시설 조성 등 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남미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방침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남미륵사 법흥스님은 장학기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남미륵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아미타불 불상이 있으며, 40년 동안 가꿔온 50만 그루 서부해당화와 1천만 그루 철쭉이 봄철이면 장관을 이루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강진의 명소다.

군은 앞으로 기존 무료로 운영돼 오던 남미륵사의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관광객들에게 강진사랑상품권을 증정해 읍내권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남미륵사를 찾은 관광객은 약 300만명으로 추정, 300여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정영록 기자



우기철 침수 대비 ‘이동형 대형 양수기’ 완비

함평군, 분당 11t 양수...신속한 현장 배치 가능

함평군은 “최근 여름철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형 양수기를 구매, 시험 가동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양수기 시험 가동은 이상의 함평군수, 윤영량 군의회 의장 등이 참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사진)

이동형 대형 양수기는 분당 11t의 양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트럭에 탑재해 신속한 현장 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침수 발생 시 초기에 양수작업이 가능해 발빠른 초동 대처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훈석 안전관리과장은 “올해 여름



은 엘니뇨 현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